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 231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 65

골프장과 목장에 싸인 서쪽 지맥의 분수령

입력 : 2005. 02.04. 00:00:00



▲폭낭오름에서 바라본 왕이메, 그 너머 괴수치, 돛박이오름이 일직선상에 중첩되어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폭낭 왕이메 괴수치 돛박이

한 겨울 을씨년스러운 날씨다. 차가운 비를 맞아 건강을 해치는 일은 피해야 하겠기에 폭낭, 왕이메에 이어 서둘러 괴수치와 돛박이오름까지 무사히 횡단했다는 데에 만족해야 한 탐사였다.

서부관광도로 새별오름 맞은편 화전마을 진입로로 들어서면 왼쪽에 북돌아진오름이 가까이 보이고, 그 다음에 폭낭오름, 그리고 길 오른쪽에 안덕지경의 왕이메, 괴수치, 돛박이오름이 횡렬로 이어져 있다.

팽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폭낭오름은 로드랜드 골프장 안에 있다. 오름 기슭 남쪽 장소에는 꽤 규모있는 빌리지 건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폭낭오름 북쪽에는 북돌아진오름, 괴오름, 다래오름이 자리잡고, 동남쪽에는 골프장내 빈네오름, 그 너머 좌우로 돌오름, 이돈이, 영아리오름이 이어진다. 서남쪽에는 안덕면 광평리 소재 왕이메, 괴수치, 돛박이오름이 일직선상에 늘어서 있다. 하지만 GPS없이 여간 방위를 잡기가 어렵다.그 만큼 폭낭오름은 오름 속에 파묻혀 있다는 얘기다.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방목지였던 오름이었다. 비교적 완만한 등성을 하고 있는데 개랑초지가 조성됐던 흔적이 오름 정상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오름의 동북사면은 산뽕나무, 단풍나무, 때죽나무, 보리수나무, 팡팡나무, 윤노리나무 등이 우거져 있다. 이 폭낭오름과 괴오름, 다래오름, 빈네오름 사이 사각형모양의 공간은 훌축이왓, 문달이왓 등의 지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골프장 코스로 변해 있다.

골프장을 빠져나와 도로를 건너 양지목장과 호명목장 사이의 왕이메를 찾았다. 옛날 탐라국의 삼신왕이 이 곳에서 사흘 동안 기도를 했다는 데서 연유하여 오름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기복이 뚜렷한 산체는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고, 남사면 등에 수많은 묘자리를 갖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교환교수 일 때문에 6개월 만에 탐사에 나선 신영대 탐사위원은 “주변 일대가 서쪽 맥의 분기점을 이루는 곳으로 서북풍을 막아주는 양명한 땅이라서 묘자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골프장의 콘도사업장 위치 선정에도 풍수가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탐사팀이 앉아 바라보는 왕이메 북봉에 삼공사(三公砂, 일자형의 능선 위로 살짝 솟은 봉우리)가 나타나 몃시선을 사로잡는다.

분화구를 한바퀴 도는 것도 왕이메의 매력이었다. 그 깊이가 무려 101.4m나 되는 원형 분화구(일명 베리창), 그리고 남동쪽에 삼나무가 울창한 깊이 40m정도 되는 또 하나의 굽부리가 특이하다.

이곳에도 어른 허벅지 굵기의 비자나무들이 쉽게 보인다. 가까운 바리메오름, 북돌아진오름, 괴오름, 다래오름 등에서 봤던 비자나무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 수 십 년 땅속에 씨앗의 형태로 있다가 산불 등 외부조건으로 변화로 뒤늦게 발아하는 수종들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옛날에 왕이메 오름 일대에 비자나무가 꽤 많이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곳의 비자나무도 최근에 종자의 껍질이 벌어져 싹을 틔운 결과일 터이니 잠시 인고의 세월 뒤에야 싹을 틔우는 자연의 오묘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겨울비가 얼굴을 때린다. 하지만 일직선 상의 왕이메, 괴수치, 돛박이가 오름의 삼중주를 연상케하니 탐사팀은 왕이메를 하산한 뒤 주저치 않고 괴수치와 돛박이오름을 순식간에 돌파했다. 괴수치는 깔때기 모양의 원형분화구였고, 돛박이오름은 북향으로 터진 말굽형분화구였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왕이메 분화구, 울창한 자연 숲

왕이메오름의 원형 분화구는 크기 뿐만 아니라 식생이 주변의 다른 오름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왕이메오름과 함께 탐사가 이루어진 주변의 폭낭, 괴수치, 돛박이오름은 일부의 외륜사면을 제외하고 중산간지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쥐똥나무, 국수나무, 영주치자, 찔레와 청미래덩굴 등을 주요 종(種)으로 하는 관목림과 참역새와 부분적인 곰솔 이입(移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초지 또는 삼나무나 측백나무 등의 인공조림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에 반해 왕이메오름의 분화구는 일부 삼나무 조림지역을 제외하면 낙엽활엽수림이 발달되어 있다.

한편 왕이메오름 분화구내 숲의 주요 종 조성도 한라산 해발 600~1,400m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낙엽활엽수림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왕이메오름의 낙엽활엽수림은 당단풍, 때죽나

무, 산딸나무, 서어나무 등이 주요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참나무류, 벚나무류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왕이메오름의 울창한 숲이 조림된 숲과 어우러져 부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제주도내 중산간에 위치한 오름의 대부분이 삼나무, 측백나무, 곰솔 등으로 인공 조림된 숲을 이루는 것과 차별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생물의 다양성 유지 등 숲이 주는 수많은 가치와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을 고려한 오름의 숲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고정균 탐사위원(한라산연구소/식생분야)>

[전문가 리포트] 빼어난 기운의 보고'

산이 有情(유정)하면 인심이 유연하여 너그럽고, 산이 無情(무정)하면 졸렬하여 인정이 마르고 표독하여 소견이 좁다. 서쪽의 지세는 곡식을 쌓아 두는 창고나 혹은 검과 창 의 형상이니 농사의 경작에 뛰어나거나 문무를 겸전한 인물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오름과 오름 사이로 이어지는 포근한 융결이 마치 물결치듯 윤택한 토질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

왕이메 오름은 풍수학적으로 영실의 신령한 기운을 받아 법정약, 녹하지 오름으로 이어지는 맥을 받아 서쪽의 지기를 충전하고 분맥하는 중요한 오름중의 하나이다. 왕이메 오름의 큰 몸체는 주변의 이어진 오름들이 마치 문무백관을 거느린 듯 한 의연한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로 하늘의 기운을 품기라도 하듯이 거대한 원형분화구가 물의 기운을 흡수하여 서쪽의 땅을 윤택하게 적시는 기능을 한다.

천혜의 가치가 함께 하는 땅엔 언제나 인간의 이기심이 닿게 마련인가. 왕이메 오름의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함께 공유할 무한한 생명력의 가치들이 언제인가 모르게 소수의 공유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개발이란 미명의 파괴로 곳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흙을 깎아 내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곳의 지맥을 상하지 않게 하여 서쪽의 땅이 살고 제주 땅의 기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 이 순간의 형태만이라도 훗날의 세대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학교수/풍수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